

황순원 소년소설과 경계성의 의미고찰

崔美先*

차 례

- | | |
|-----------------------------|-------------------------|
| 1. 서론: 은폐된 시간의 작품 조명 | 2) 경계에 위치한 인물의 의식과 행동양식 |
| 2. ‘소년소설’의 개념과 경계성의 문제 | |
| 1) 소년소설 용어의 문제 | 4. 과도기의 성과와 경계성의 의미 |
| 2) 소년소설 조건과 경계성의 문제 | 1) 서사 주제의 토대 마련 |
| 3. 소년소설과 경계지점의 인물 의식 및 행동양식 | 2) 이니시에이션의 시험과 경계 넘기 |
| 1) 황순원 소년소설의 기초적 고찰 |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황순원 소년소설의 인물성격과 주제를 분석하면서 소년소설이 가지는 경계성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순원은 중실 중학교 재학 중인 소년기에 소년소설을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한다. 그의 문학 활동 전체 과정을 보면 시 쓰기에서 소설쓰기로 옮겨가는 전후에 소년소설을 발표하였는데, 15세에 승덕소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와세다 대학 제 2고등학원 입학 이전인 경계에 위치했던 시기이고, 시에서 소설로 옮겨가는 경계에 있을 때 소년소설을 집필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번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황순원의 소년소설과 경계성의 의미를 두 가지 방향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소년기에 집필한 소년소설의 주제는 그 이후 창작 전반에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다. 다음으로 시에서 소설로 옮겨가는 과정에 소년소설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 경계성의 의미를 작가 작품론적 관점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황순원의 소년소설로는 「추억」과 「졸업일」 두 편이 있고, 초기 단편소설 「별」과 「닭 祭」도 소년소설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황순원의 소년소설의 인물의 특성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먼저 모성애적 사랑을 희구하면서 일시적인 퇴행양상을 보여 주었고, 다음으로 가난에 대응해서 이기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누나의 죽음과 자신이 아끼던 생명체의 죽음에 직면하면서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는 소년의 불안정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는 의식과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소년소설 인물의 행동양식과 주제는 이후 황순원의 장, 단편 소설에 확장되어 반영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소년소설 「추억」에서 화염 속에서 주인집 아들 영일을 구해내는 경숙의 모습은 이후 장편소설 『카인의 후예』에서 오작녀가 산불을 낸 지주의 아들 어린 박 혼을 구해내는 장면과 거의 흡사하게 일치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소년소설의 인물은 이후 소설문학 전반에 걸쳐 원형적 인물로 등장하는 장면들을 확인하게 되며, 현실인식 문제도 사실적 리얼리즘 구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년소설에서 구현한 미의식과 작가의식은 장, 단편 소설에서 재현되어 작가정신의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또 이니시에이션 소설에서 분리(separation)-전이(translation)-결합(incorporation)의 심리적 변화과정은 황순원이 시 창작으로 시작하여 소년소설을 발표하고 그리고 장편 소설로 이행되는 작가의 삶의 과정에서 거의 재현되는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황순원에게 소년소설이라는 장르가 가

지는 경계성의 의미는 매우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황순원 소년소설, 경계성, 이니시에이션, 추억, 졸업일, 닭 제, 별

1. 서론 : 은폐된 시간의 작품 조명

소설가 황순원이 남긴 문학 업적은 실로 방대하고 다양하다.¹⁾ 그에 걸맞게 작가 황순원에 대한 연구는 한 눈으로 일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축적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황순원 연구에서 아직 미답이나 다름없는 영역이 있다면 ‘소년소설’ 분야이다. 황순원의 소년소설로는 『追憶』과 『卒業日』을 꼽을 수 있다.

황순원은 시(詩) 창작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점차 소설로 이행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순원 연보²⁾에 의하면 16세(1930)에 처음 동요와 시를 쓰기 시작하여, 17세에 시 『아들아 무서워 말라』(1931년 9월), 『默想』(1931년 12월)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 소설 『거리의 副詞』를 발표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 창작에서 소설 창작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전후(前後)해서 황순원은 소년소설 『追憶』과 『卒業日』을 썼다. 『追憶』은 1931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했고, 『卒業日』은 당시의 대표적인 아동문학매체 『어린이』 1932년 4월호에 실었다.³⁾ 뿐만 아니라 초기 단편소설

1) 황순원은 단편집 여덟 권(106편)과 일곱 권의 장편소설, 그리고 2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황순원에 대한 연구 성과는 2008년 현재 소논문이 130여 편, 학위 논문이 260여 편에 달하고 있다.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참조.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 양상연구』, 연세대 대학사논문, 1998. 참조. 김소이, 『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8, 8쪽 참조.

2) 장현숙, 앞의 책, 456-459쪽 참조.

중에는 소년 인물이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삶에 눈을 뜨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 다수이다.

황순원은 숭실 중학교 재학 중인 소년기에 소년소설을 발표하였는데, 그의 문학적 활동 전체 과정으로 보면 시 쓰기에서 소설쓰기로 옮겨 가는 과정을 전후해서 소년소설을 발표한 것이다. 15세에 송덕소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와세다 대학 제 2고등학원 입학 이전에 소년소설을 발표한 것인데, 이 시기는 성인과 유년의 경계에 위치했던 때이다. 그리고 시에서 소설로 옮겨가는 경계에 있을 때이기도 하다.

이번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황순원의 소년소설과 경계성에 의미를 두고, 두 가지 방향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소년기에 집필한 소년소설의 주제는 그 이후 창작 전반에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시에서 소설로 옮겨가는 과정에 소년소설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 경계성의 의미를 작가론적 관점에서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황순원 소년소설의 구조와 주제 분석이 선행된다.

연구범위는 발표 당시에 ‘소년소설’로 명명된 『추억』과 『졸업일』이 우선 해당된다. 다음으로 소년의 세계를 다루고 있되, 이번 논문의 주제에 부합되는 작품을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별』, 『닭 祭』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황순원의 초기 소설이면서, 두 작품 모두 죽음을 제재로 다루고 있고, 공히 소년의 심리, 정신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이다.

황순원 문학연구는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창작된 작품을 전기로, 그 이후의 작품을 후기로 파악하는 구분법을 택해서 접근하기도 하고⁴⁾ 주제변화에 근거하여, 첫째 이니시에이션에 대한 연구,

3) 『어린이』 연구는 1976년 어린이진흥회에서 보성사 본을 영인으로 발행한 것을 가장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보성사(어린이문화진흥회) 영인본에는 『卒業日』이 실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1932년 4월호가 누락, 결호이다. 그래서 『卒業日』은 그동안 작품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미공개 어린이』(소명출판, 2015년)가 총 5권 발간되면서 『卒業日』(1932년 4월) 전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설화성에 관한 연구, 셋째 상징에 관한 연구, 넷째 심리학적 연구, 다섯째 테마 비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⁵⁾ 그의 문학적 성과에 걸맞게 그동안 다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권영민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용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험했고, 소설적 형상화가 가능한 모든 주제를 다루어온 작가’로 꼽으며 “소설가 황순원을 말하는 것은 해방 이후 한국 소설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⁶⁾고 했다. 유종호는 ‘겨레의 기억 전수자’⁷⁾로 명명했으며, 김종희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지순한 정신력의 정화’로 황순원 문학세계를 설명했다.⁸⁾

황순원의 폭넓은 안목과 기법의 다양성 덕에 연구 성과 또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⁹⁾ 본고와 연관성이 있는

-
- 4) 일반적으로 황순원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에서 창작된 작품을 전기로, 그 이후의 작품을 후기로 파악하는 전후 구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황순원 문학의 변화 양상을 주체의식의 변모라는 측면에서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구분법이 최근 늘고 있다. (정수현, 『황순원 단편소설의 동심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15쪽 참조)
- 5) 남보라, 『황순원 단편 소설의 모성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4-6쪽 참조
- 6) 권영민, 『황순원의 문체, 그 소설적 미학』,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148-149쪽.
- 7) 유종호, 『겨레의 기억- 황순원의 일면』, 『황순원 전집2』 해설, 문학과 지성사, 2005(초판 1980), 256-257쪽.
- 8) 김종희, 『삶과 죽음의 존재양식』, 『문학사상』, 1998, 3.
- 9) 황순원의 문학세계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김성옥(『시와 인형』, 『해동공론』, 1952), 곽종권(『황순원론』, 『문혜』, 1952)부터 부분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여, 1960년 대에는 대표적으로 구창환(『황순원 문학 서설』, 『어문학 논총』, 제6호, 1965), 천이두(『토속적 상황설정과 한국 소설』, 『사상계』, 제188호, 1968.), 이어령(『식물적 인간상』, 『사상계』, 1960), 백철(『전환기의 작품세계』, 『동아일보』, 1960.12.9.~10.), 김치수(『외로움과 그 극복의 문제』, 『문학』, 1966.) 등이 황순원 문학에 나타난 생명주의적 휴머니즘 문제와 자의식, 서정성의 문제에 역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1970년 대 김병익(『순수문학과 그 역사성』, 『한국문학』, 1976.), 유종호(『겨레의 기억』, 전집 제2권, 문학과 지성사, 1981.), 오생근(『전반적 검토』, 『황순원 연구』 전집 제12권, 1985.)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황순원 문학을 살펴 보았고, 1980년대에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기획한 『황순원 전집』(1980.12~1985.3)

소년소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배은 『황순원의 첫 작품 『追憶』 연구』¹⁰⁾와 윤미란 『황순원 초기문학연구』¹¹⁾가 있다. 최배은은 황순원의 첫 창작품은 『나의 꿈』(『동광』, 1931.7.)이 아니라 1931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追憶』임을 증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윤미란은 작가가 숭실학교 재학시절에 발표한 초기 창작물 고증에 비중을 두면서, 『졸업일』과 관련된 당시의 사회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김소이는 『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에서 황순원의 소년소녀 인물이 성인 남녀로 재탄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¹²⁾ 강정구는 현실 속의 아동을 보기 전에 이미 순수한 표상으로 시각화하고자 한 황순원의 의도가 전략적으로 선행되었음을 말했다.¹³⁾ 이현주는 『黃順元 소설의 人物 研究-이니시에이션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기성인 사회에 입사하려는 주인공 인물이 겪게 되는 갈등의 양상을 M, 마르쿠스(Marcus)의 이니시에이션 소설 세 가지 유형에 비추어 분석하였다.¹⁴⁾

황순원에 대한 논의는 방대하다 할 만큼 축적되었으나, 황순원의 소년

과 고회 기념문집 『말과 삶과 자유』(1985), 황순원 작가·작품론을 묶은 『황순원 연구』(1985)가 간행되었다. 이 시기 진형준(『모성으로 감싸기, 그에 안기기』), 장현숙(『황순원 작품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2.), 김종희(『황순원의 작중인물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85)의 논고를 들 수 있고, 이태동의 『실존적 현실과 미학적 현현』(『현대문학』, 1980) 연구가 돋보인다. 1990년 대 이후 포괄적 연구가 시도되어 양선규(『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1), 박양호(『황순원 문학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94), 박진(『황순원 소설의 서정적 구조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2), 임채욱(『황순원 소설의 서정성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2) 등이 있다. 남보라, 『황순원 단편 소설의 모성형상화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1-4쪽 참조.

- 10) 최배은, 『황순원의 첫 작품 『追憶』 연구』, 『한국어와 문화』, Vol. 12,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2.
- 11) 윤미란, 『황순원 초기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5, 12-15쪽.
- 12) 김소이, 『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8, 13쪽.
- 13) 강정구, 『황순원 초기 소설 속의 순수한 아동 표상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Vol.33, 한국아동문학학회, 2017
- 14) 이현주, 『黃順元 小説의 人物研究』,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8.

소설과 소년소설이 함의하고 있는 경계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황순원 소설 창작의 변화과정을 3단계¹⁵⁾ 혹은 5단계¹⁶⁾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년소설 창작에 관해서는 여태 은폐되었거나,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년소설’의 개념과 경계성의 문제

1) 소년소설 용어의 문제

‘소년소설’이 형성되기 위해 ‘소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시간적 단위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유사한 용어 사용의 폭이 넓다 보니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용어 혼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래서 ‘소년소설’, ‘청소년 소설’, ‘소년소녀소설’, ‘아동소설’, ‘어린이 소설’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소년’, ‘아동’, ‘청년’ 세 어휘가 전통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두지

15) 권영민은 황순원의 소설 창작 변화과정을 3단계로 구분 지었다. 제 1단계는 6.25를 전후한 시기까지의 단편 위주의 작품 활동 시기이고, 2단계는 장편 『카인의 후예』(1953) 이후 『日月』(1964)에 이르기까지이며, 그 이후는 활동은 3단계에 해당된다. 권영민, 『일상적 경험과 소설의 수법- 황순원의 단편들』, 『黃順元全集』 제4권, 261쪽.(이하 『黃順元全集』은 ‘전집’으로 약칭함)

16) 장현숙은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제1기(1930~1949)는 시로 등단한 시기로 부터 소설로 전환한 후 6.25에 이르기까지이며, 제2기(1950~1955)는 6.25 전쟁 발발부터 약 5년간에 걸친 기간이고, 제3기(1955~1964)는 분단 역사의 현실 속에서 야기된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고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한 기간이다. 제 4기(1964~1975)는 작가 의식이 사상, 철학적으로 깊이 침잠하면서 실존적 삶에 대한 인식과 형이상의 문제를 탐색한 시기이고, 제5기(1976~현재)는 마지막 작품들이 창작된 시기이다.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시와시학사, 1994, 10쪽.

않고 교차사용 되어 왔고, 무엇보다 인생의 발달과 관련된 시기를 나이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다보니, 용어가 혼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소년’으로 용어를 고정하고자 하는데, 사용연원이나 의미의 포괄성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은 문화적으로 장구한 기간 사용된 연원을 가지고 있다.¹⁷⁾ ‘소년’은 ‘늙지 않은 사람’ 혹은 ‘나이 어린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근대 변혁기에 강력한 계몽 기획의 작동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상되기도 했다. ‘늙지 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의 ‘소년’이 다분히 연령에 의한 지칭이었다면 최남선의 『少年』에서 호명된 ‘소년’은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¹⁸⁾

‘소년’이라는 용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성(性) 표징이었다. ‘소년’은 ①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사내아이 ②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사람¹⁹⁾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집착한 나머지 ‘소년소설’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우리 언어의 문화적 기반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소년’의 통시적 사용례를 살펴보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²⁰⁾ ‘소년’은 미성숙

17) 신라 경덕왕 4년(745년)에 설치된 ‘소년감전’(少年監典 景德王改爲鈞天省, 後復故, 大舍二人 史二人) 『三國史記』, 卷三十九, 雜誌, 第八 職官, 李丙燾 譯註, 『삼국사기』下, 을유문화사, 1983, 259쪽) 등에서도 그 사용을 찾아 볼 수 있고, 1900년 대 후반에 들어서면 최남선의 『少年』과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구축된 계몽담론에서 국난에 즈음해 근대 국가를 책임져 나갈 주체로 호명되었다.

18) 『少年』에서 호명된 ‘소년’은 ‘신대한(新大韓)의 용소년(勇少年)’, ‘쾌소년(快少年)’ 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주체’라는 의미였다. 줄고, 『한국 소년소설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13-21쪽 참조.

19)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표준 국어대사전 참조.

20) ‘少年寡婦로 發奮해 一代의 女流 事業家로 故 白善行女史一生(…)’ 『동아일보』, 1933, 5.10. 신문기사, ‘벽상에 흐 소년부인의 화상을 내려보니, 문지가 가득하여, 글즈도(…)’, 이해조 역, 『털세계』, 雁東書館, 1908. 14쪽 참조, 이같은 사용례를 보면 근대초기까지 소년이라는 말은 중성적인 의미에서 ‘젊은 사람’의 뜻으로

한 존재를 총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성적 차별을 함의하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할 필요는 있다. 문화사적 역사를 근거해서 보면 ‘소년’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을 대표하기 보다는 ‘늙지 않았다’는 뜻에 치중해서 사용되었음이 드러난다.²¹⁾

또 최근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는 논리가 더해져 ‘소년’이 ‘청소년’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소년’이란 말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신종어²²⁾인 것을 감안해서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 교육학적 측면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고, 대중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일본식의 용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밝혀둔다.²³⁾

소년소설이라는 명칭은 순전히 대상성에 착목하여 명명된 탓에 여러 가지 별칭으로 불리고,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소설’, ‘청소년소설’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는 ‘소년’이다. ‘아동’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 발달 단계상에서 몇 살 위의 연령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청소년 소설’은

사용된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21) ‘소년’에서 강력하게 표상되는 의미 중 하나가 ‘미성년’일 것이다. 그러나 『少年』 혹은 『어린이』에서 불러낸 ‘소년’들을 모두 ‘미성년’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少年』 혹은 『어린이』의 독자로 상정할 수 있는 보통학교 학생 중에는 ‘수염난 상투장이나 ‘학생 서방님’ 혹은 ‘상투한 점잖은 학생’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줄져, 『한국소년소설과 근대주체 소년』, 소명출판, 2005, 38~42쪽 참조.
- 22) ‘청소년’이라는 말은 1920년대 중반이후부터 신문·잡지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일제의 사회사업 관련 문건 및 법률조항에서 그 사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제의 사회사업상에 있어 혼란되고 개량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소년과 청년은 청소년으로 자연스럽게 분류되기 시작했다.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9, 24쪽 참조.
- 23) ‘소년소설’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아직 하나의 어휘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고집할 경우 근대 아동문학 전개형성기에 ‘소년소설’이라는 표제로 발표된 작품에 대해서도 ‘청소년 소설’로 명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어 사용에서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

수입용어인 ‘청소년’에 국한되는 협소한 명칭이다. ‘소년소녀소설’은 ‘소년’의 의미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용어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용어도 ‘소년소설’이라는 명칭이 지닌 범주의 포괄성을 넘어서지 못한다.²⁴⁾

‘소년’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문화사에서 통시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인 것은 분명하다. ‘늙지 않은 사람’ 정도의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다가 근대에 들면서 기성세대와는 질적인 차이를 갖는 존재로 호명되었고, 그래서 ‘소년’은 연령에 의한 구분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려는 의지를 갖춘 ‘신세대 집단’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로 의미가 더해지기도 한다.²⁵⁾

2) 소년소설의 조건과 경계성의 문제

소년소설은 유독 대상성에 착목하여 갈래 명칭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발달은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문화 차이 때문에 연령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난점이 있으나,²⁶⁾ 소년기는 유년과 성인의 경계 지점 위치해 ‘질풍노도의 시기’ 등으로 표현되면서 고독, 소외, 혼돈, 부적응 등의 과도기적 혼란을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심하게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²⁷⁾

문학에서 경계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다루는 것은 과도기의 혼란을 무사히 완수했을 때 ‘성장’이라는 대가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변화와 혼란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문학이 하나의 방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24)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소설 작가론』, 학술정보원, 2009, 머리말.

25) 최기숙은 “소년이란 내적 자질과 지적 소양, 문화적 활동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신대한 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생태학』, 『상허학보』 16, 상허학회, 2006, 216쪽.

26) 광금주, 『발달심리학』, 학지사, 2016, 22쪽 참조.

27) 정옥분, 『발달심리학-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2004, 442쪽 참조.

없다. 소년소설의 존재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년소설의 형식적 조건과 내질(內質)은 이처럼 불안정한 경계에 위치한 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함을 여러 논자들이 말하고 있다. 다음에서 보는 소년소설의 외적 조건과 내적특질은 경계에 위치해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소년소설은 예술성은 본질로 보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른의 소설과 다름이 없다. 즉廣義의 어른소설에 屬하는 것이다. 다만 그 使命을 광범廣汎다하기 위해서 그 對象에 依해서 質的形體的技術的分化를 必要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區別없이 아동이 理解하고 認識하고 感得할 만한 內容으로 兒童이 읽을수 있는불수있는 單純한 體制와 쉬운말로써 구상해는 것임으로 소년소설도 어른소설의 한 種類이다.²⁸⁾

이주홍은 소년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아우르면서 아동이 읽을 수는 있으나 어른 소설의 한 종류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사고력에서나 신체 발달에서 소년소설의 독자는 아동의 단계는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어른의 소설과 다르지 않으나 아동들의 이해력과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함을 말하는 데서 그 경계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원수 또한 소년소설은 “동화기를 거쳐 나온 소년들이 주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기성인 소설 독자로 성장할 대상”²⁹⁾으로 독자를 상정하였는데, 향유대상에 있어서는 적어도 13~14세를 지나 현실적인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에 놓인 연령층을 포섭하고 있다고 했다. 소년소설의 독자는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철도 “소년소설의 독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다”³⁰⁾고 보다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상현은 “소년소설은 아동문학에서 성인문학으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의 성격으로 성인소설의

28) 이주홍, 『兒童文學運動一年間(少年小說)』, 『조선일보』, 1931, 2.17.

이 논문에서 맞춤법 표기 및 띄어쓰기 등은 발표당시의 형식을 따름을 밝혀둠.

29)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소년한길, 2001, 103쪽.

30) 이재철, 『兒童文學의 理論』, 형설출판사, 1983, 205쪽.

예비단계”³¹⁾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년소설의 내용적 면에서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사실주의적(寫實主義的) 문학’이면서 “어른 소설과의 경계선에다 그 한 끝을 잇대고 있다.”³²⁾고 했는데, 지(知)와 정(精)에서 큰 차이가 있는 10대 시기의 연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소년소설은 내용과 형식에서 유독 유년과 성인의 경계에 걸쳐 있는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학작품에 독자 대상이 한정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소년소설’이라고 하여 대상을 지목하고 그들을 위한 문학이라고 명시하는 데는 사회·심리학적인 발달단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불안정과 불균형의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고, 이상주의에 도달하려는 의지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려는 열망이 혼재되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이 시기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계 지점이라는 데서 중요함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계의식의 문제는 그 다음 시기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업처럼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난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가 무난하게 경계를 뛰어넘도록 후원하게 된다. 소년소설이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소년소설은 성장소설이며, 교육소설이고, 교양소설이다. 등장인물 소년이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될 경험들을 온전히 담아내야 되고, 그것을 읽는 소년은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구조이다.

소년소설의 주인공은 성장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세계의 질서를 경험하며, 보편적인 인류애를 추구하는 교양인의 덕목을 습득한다. 독자 소년은 소년소설을 통해서 장차 진입하게 될 세계에 대해 소설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소설이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정의를 수긍하게 된다. 이 두

31)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85쪽.

32) 이원수, 앞의 책, 104쪽.

가지는 소년소설의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소년소설에서 언제나 전제되고 반복되어야 한다.³³⁾ 소년소설은 ‘경계’라는 위대한 지점에 위치한 인물들이 정신적, 사회적 위치변화의 열망과 그 과정을 그린다는 데서 효용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소년소설과 경계 지점의 인물의식 및 행동양식

황순원의 소년소설로는 「追憶」, 「卒業日」이 있고, 이번 논문에서는 「별」, 「닭 祭」를 포함시킨다. 「追憶」, 「卒業日」은 애초 소년소설로 발표되었고, 「별」과 「닭 祭」의 (주인공)인물은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는 미성인 소년의 불안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물들은 외부에서 받은 충격으로 얻게 된 갈등과 심리적 억압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내면의 정서적 불안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별」과 「닭 祭」는 ‘죽음’을 제재로 하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 소년들의 의식이 변해가는 과정을 공히 다루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주인공 소년이 주변 인물의 말(言語) 때문에 심리적 충격을 받고, 그 문제를 기점으로 인생의 한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정신적 변화과정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별」과 「닭 祭」는 창작시기로 볼 때 소년소설과 같은 초기창작으로 구분된다.

1) 황순원 소년소설의 기초적 고찰

(1) 「卒業日」 구성과 인물

「卒業日」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의 짧은 작품이지만, 우선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시에서 소설로 이행해 가는

33) 최명표, 앞의 책, 머리말 참조.

과정에서 창작되었는데, 황순원이 만 17세 소년기에 가졌던 작가의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卒業日』³⁴⁾은 그동안 제목으로만 전해질 뿐 그 작품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잡지 망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³⁵⁾ 소년소설 『卒業日』의 존재를 입증하는 정보는 노양근(盧良根)이 쓴 평론³⁶⁾ 몇 줄이 전부였다.

노양근은 1932년 7월호 『어린이』에 『어린이 雜誌 半年間에少年小說總評(續)』을 계절평(月評)형식으로 실었다. 이 계절평에는 그해 상반기 동안 어린이 잡지에 실렸던 8편의 소년소설을 다루면서, 황순원의 『卒業日』에 대해서도 짧게 비평했다.³⁷⁾ 노양근(盧良根)의 평론으로 『졸업일』의 작중 인물이 ‘길순’이고 ‘보통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소년’이라는 것, ‘어머니와 곤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정도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입수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 짧은 정보를 통해 황순원은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追憶』 외 다른 소년소설을 더 남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卒業日』을 발표한 시기가 1932년이라고 하면 황순원이 본격적으로

34) 『卒業日』에 앞서 『追憶』이 먼저 『동아일보』에 발표된다. 하지만 『卒業日』은 학술대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는 자리라고 보아서 『追憶』보다 먼저 거론하기로 한다.

35) 잡지 『어린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1976년 어린이진흥회에서 보성사 본을 영인어로 발행한 것을 가장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보성사 영인본에는 『卒業日』이 실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1932년 4월호가 누락되어 있다. 이 논문은 『미공개 어린이』에 실린 텍스트를 기본으로 삼는다. 『미공개 어린이』는 2015년 소명출판에서 총 5권 발간되어 『어린이』연구에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2권이 『어린이』 제10권에 해당되는 1932년 책이고 1932년 4월호에 『졸업일』이 실려 있다. 제10권은 1호부터 7권이 수록되어 있다.

36) 노양근, 『어린이 雜誌 半年間少年小說總評(續)』, 『어린이』, 1932년 7월, 38-42쪽. 노양근은 이 평론에 『卒業日』 외 김중곤의 『햇불』, 이동우 『가물』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37) 1932년 7월호에 실린 노양근의 비평은 『어린이 雜誌 半年間少年小說總評(續)』은 그해 상반기 어린이 잡지에 실린 소년소설 전반에 대한 총평이다. 속(續)은 전편(前篇) 1932년 6월호에 이어서 쓴 글이다.

소설을 창작하기 이전인데다 시 창작에서 소설 창작으로 옮겨가는 경계에 서 있는 시기이다. 이때 소년소설을 썼다.

시와 소설 사이에 소년소설이 개입되어있었고, 그 사실은 작가 황순원의 창작 인생 전반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소년에서 성인으로, 혹은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모해 가는 시기의 작품인데 작가의 소년기 의식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더욱이 노양근은 “어느 程度 成功한作品이라고 말하고 싶다.”³⁸⁾라고 평가했는데 여기서 『卒業日』의 작품성을 유추할 수 있고 소설가로 변모되는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해지는 것이다.

『卒業日』은 초점화자 길순이와 그의 어머니 대화로 중심 줄거리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렵게 보통학교 졸업을 맞게 되었지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상급학교 진학이 막연한 상태다.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을 정도로 학업과 생활 모든 점에서 모범이지만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곤궁하다.

‘상당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성적을 올렸지만, 자신의 뒷바라지 때문에 정미소에 다니는 노쇠한 어머니를 보면서, 상급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스스로 단념한다.

신문배달까지 하면서 어렵게 얻어낸 졸업장이 즐겁지 않은 것은 해결되지 않는 생활고 때문이다. ‘배꼽흡과 주립’을 견뎌야 하고, 어머니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소년 길순이다. 『卒業日』의 길순이를 통해 작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의식과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8) 노양근, 『어린이 雜誌 半年間少年小說總評(續)』, 『어린이』, 보성사, 1932년 7월, 39쪽.

(2) 「追憶」의 구성과 인물

1931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追憶」은 황순원이 가장 먼저 쓴 산문작품이다.³⁹⁾ 황순원의 나이 16세 때이다. 첫 단편 소설 「거리의 부사」(1937년7월)보다 무려 6여전에 『동아일보』에 발표했다.

「追憶」은 1931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학예면(4면)에 3회에 걸쳐 연재되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비중 있는 위치에 ‘소년소설’이라는 갈래 명으로 실린다. 제목 왼쪽에는 작가 이름이 있고 연재 횟수 또한 밝혀 놓았다. 소설의 전체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정도의 분량이고, 연재 마지막 회인 4월 9일자 원고 끝에는 1930년 4월에 썼다는 표시도 해두었다.

「추억」은 당년(當年) 16세 영일이가 중심인물인 액자 형 소설이다. 영일은 현재 평양시내 ×× 종교중학교에 재학 중으로 금년 9월에 전학으로 입학하게 된 외로운 소년이다. 전학을 왔기 때문에 친구들도 없거니와 온순한 성품 때문에 스스로 친구를 구하지도 않는다.

영일이의 심리를 달래주는 것은 한 장의 여자 사진인데, 친구들과 떨어져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사진 속의 인물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사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긴다.

영일이가 ×× 종교중학교에서 급우들과 겪게 되는 오해가 이 글의 외화(外話)에 해당된다면, 불구덩이가 된 화재 현장에서 3세의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식모 경숙이의 희생은 이 소설의 내화(內話)가 된다.

(3) 「별」, 「닭祭」의 구성과 인물

「별」과 「닭祭」에서 소년(아이) 주인공은 주변 인물들이 던진 말 때문에 심리적, 육체적 고통과 시련을 겪는 공통점이 있다. 「별」에서는 이웃의 과수노파가 무심하게 던진 “자 동복 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마니 닭

39) 「追憶」은 1931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연재되는데, 마지막 회 원고 끝에 1930년 4월 1일에 쓴 것으로 부기되어 있다.

왔다 왜,”하는 한마디로 아이의 갈등은 시작된다. 『닭 祭』에서는 반수영감이 늙은 수탉을 두고 “이제 뺨이 되어 나갈 거”라고 소년에게 말한다. 이 말 때문에 소년은 선악의 대결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시련을 겪게 된다. 다만 『별』에서 과수노파는 곁에 있는 젊은 여자에게 무심하게 던진 말이지만, 『닭 祭』에서 반수영감의 말은 위악(僞惡)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별』은 1941년 2월 『인문평론』에 발표되었다. 주인공 소년은 부재하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심리적 집착에 사로잡혀 이상화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의식의 표면에 드러내는 아홉 살 아이이다. 죽은 어머니의 이미지와 동복(同腹) 누이의 실제모습을 대비하면서 발생하는 배타적인 대립 관계는 미분화된 소년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아홉 살 난 아이는 동네의 과수노파로부터 죽은 어머니와 누이가 닭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와 누이의 배타적 대립은 1차적으로 미와 추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부재하는 어머니는 ‘별’로 이미지화 되어 소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서, 아이가 보기에 추하다고 생각되는 누이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전혀 합치될 수 없고 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누이가 어머니와 닭았다고 하는 이웃의 평판에 유별나도록 날카롭게 반응하고, 어머니와 누이가 닭지 않았음을 확인하려고 뛰어다닌다.

『별』은 아홉 살 아이가 열네 살이 될 때까지 변화 과정이 서사의 시간이다. 그 시간상에서 의식의 미분화 상태의 소년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소설이다. 인간에게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통해 소년은 미성인(未成人)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을 깨닫는다.

『닭 祭』는 1940년 8월 한성도서에서 발행된 『황순원 단편집』에 수록되었다.⁴⁰⁾ 미성숙한 소년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선악(善惡)과 생사

(生死)의 대립을 상징적 구조로 보여준 『닭 祭』는 아직 삶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소년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는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동네 반수 영감은 미신적 사고방식으로 늙은 수탉이 뱀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년은 수탉이 뱀이 되어 제비 새끼를 잡아 먹을까봐 두려워 수탉의 목을 매어 갈밭에 버린다. 늙은 닭을 장사지낸 것이다. 소년은 그날로 앓기 시작하고, 수탉을 죽인 것 때문에 자신은 유사한 죽음의 세계, 상징적 죽음 세계에 진입하면서 죽음과 같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선(善)을 상징하는 제비를 살리기 위해 이내 악(뱀)이 될 수탉을 장사했지만 생명을 훼손 한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소년은 유사 죽음을 경험한다. 반수 영감은 소년에게 고통을 더해준다. 복숭아 가지 매질이나, 생담뱃내 연기를 얼굴에 뿜어대 소년이 까무러칠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다.

반수영감의 도망간 증손녀 사건은 반수 영감의 말이 비과학적인 발언임을 반증한다. 때에 따라 거짓말도 불사할 정도의 근거 없는 반수 영감 말에 소년은 죽음과도 같은 혹독한 정신적, 육체적 시련을 겪은 것이다.

『별』과 『닭 祭』에서는 주인공의 어린 화자가 주변의 무심한 한 마디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가를 보여준다. 『별』에서 과수노파는 주관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죽은 어머니의 외모에 대해 말했고, 『닭 祭』에서 반수영감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유사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소년(아이) 주인공이 외부의 말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 육체적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발달단계 상에서 소년기의 특징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 있

40) 1940년 8월 한성도서에서 발행된 『黃順元短篇集』에는 「늪」, 「허수아비」, 「配角들」, 「닭제」, 「園丁」, 「피아노가 있는 가을」 등 1938년 10월부터 1940년 6월 사이에 창작한 작품이 실렸다. 김종희, 『황순원』, 새미, 1998, 346쪽 참조.

다.

2) 경계에 위치한 인물의 의식과 행동양식

(1) 구원적 모성애를 회구하는 소년의식

환경으로 통칭되는 세계 혹은 우주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소년들이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 걸음 내딛거나 아니면 일종의 퇴행으로 보이는 정체의 현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⁴¹⁾ 그래서 경계선 상에 위치한 이들 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전진과 퇴행을 반복하는 존재론적 불안정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혼란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안정한 소년의식은 『추억』의 ‘영일’에게서 구원적 모성애를 회구하는 양상으로 두드러진다.

『추억』에서 모성애는 거의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러있다. 『추억』의 화자는 당년(當年) 16세 영일이다. 현재 평양시내 ×× 종교중학교에 재학중으로 금년 9월에 전학으로 입학하게 된 외로운 소년이다. “공부도 잘하고 또 조행(操行)도 좋은 것 같아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전학으로 온 뒤라 친구들도 없거니와 온순한 자신의 성품 때문에 스스로 친구를 구하지도 않는다.

외로움 속에 젖어 있는 이 소년을 지탱해주는 것은 자신을 위해 희생해 준 가정부 경숙의 모성애적 사랑이다. 이 소년의 심리를 달래주는 것은 한 장의 여자(경숙) 사진이다. 영일이 친구들과 떨어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사진 속의 인물 때문인데, 이 사진으로 오해가 생긴다.

품속에 간직하였다가 사진을 가끔 꺼내보면서 ‘전학 소년의 외로움’을 달래는 영일의 모습을 불순하게 여긴 동급생 친구들이 ‘여자의 사진’을

41) 피아제 발달이론에서 말하는 조절의 단계처럼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도식을 동화,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시 정체는 퇴행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옥분, 『발달심리학』, 학지사, 2004, 49-52쪽 참조.

담임에게 고해바치고, 영일은 선생님 앞에 불려가서 엄중한 훈계를 듣는다. 곧 영일이가 재학 중인 종교 중학교는 학칙이 엄격하여서 여자의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군도 다! 이는 바가 아닌가? 우리학교는 규측(規則)이 엄격한학교이 니만치 녀자의 사진같은것을 가지고 다니면안되는것이 아닌 가? 응?”⁴²⁾

선생님 앞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고 눈물로만 항변할 뿐인 영일이는 집으로 돌아와 그 답답한 마음을 글로 쓴다. 그리고 이튿날 육십이 훨씬 넘은 교장선생님은 아침 조회에서 강설(講說) 대신으로 뭔가를 읽겠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영일이 눈물로 쓴 내용이 무엇이며, 그 글의 도착지점이 어디인지가 드러난다. 교장선생님의 강설은 이 소설의 내화(內話)를 포괄한다.

모든사람들은 단꿈을 꾸며 몸곤히잠잘 때 이무서운 불결이 타올르는 집 二層창문을 열고 한녀자가 음성노파 구원을 청하엿습니다. 그 녀 자는 전경숙이라는 녀 자인데 그집食母로 잇든 녀 자입니다.(...중략...) 경숙이는 안으로 들어가자요를 가져다가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아래 잇든 사람들은 이미경숙이가 아이를나려 보낼려고하는 줄을 알고요의 네귀를 쥐고 창밑으로 가까 히 왔습니다. 그때 경숙이는 또방으로 들어가드니 삼세된 산아이를 끼고나왔습니다. 그는 알에모인 사람들보고 암사자와같이 힘있게.

“받아주세요!”하고 부르짖은후 끼고나왔든 삼세된산아이를 내던졌습니다.

(...생략...) 43)

화마에 휩싸인 집은 예상대로 화자 영일이의 집이다. 소방대가 달려왔

42) 황순원, 『추억』, 『동아일보』, 1931.04.07., 4면.

43) 황순원, 『추억』, 『동아일보』, 1931.04.08., 4면.

지만, 석유상점 기름에 붙은 불이라 진화작업도 소용이 없었고, 불길은 점점 타올랐다. 불길에 쌓여있는 집 이층에는 5세 여아와 3세 남아가 자고 있다. 경숙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기에 급급해 한다. 이층 창 아래로 요(이불)를 던져놓고 3세 된 사내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진다. 그리고 다시 5세 여아도 던지지만, 여자아이는 크게 부상을 당한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화재로 인하여 경숙은 희생되고, 영일의 친누이와 부친도 화마에서 얻은 부상으로 세상을 떠난다. 3세 남아였던 영일이란 생존한다. 고아가 된 영일은 숙부 집으로 옮겨지고, 지금 중학생으로 성장한 영일은 자기를 구하느라 목숨을 잃은 생명의 은인 경숙을 사진을 얻게 되어 ‘깃븐때와 슬픔의 벗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추억』에서 식모 경숙이가 보여준 희생은 모성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구덩이 속에서 주인집의 두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경숙은 끝내 화마에 희생되고 만다. 엄마의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불길 주변에서 사람들이 외투를 깔고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경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집의 두 아이들을 먼저 창밖으로 내보낸다. 어머니라야 할 수 있는 정도의 희생이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목숨까지 내어준 경숙의 숭고한 희생은 예수그리스도의 희생과 다르지 않았고, 종교중학교 교장선생님을 감동시키기에도 충분했다. 영일에게 쏟아졌던 급우들의 의심과 담임의 불신은 말끔하게 해소된다. 그 뿐 아니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여자 사진 소지 허용’이라는 예외적인 허락도 얻는다.

영일이가 끝까지 간직하고 싶어 했고, 회고하고자 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한 경숙의 희생적 모성애이다. 영일은 새 환경에서 친구를 만들고,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동급생 친구들과 어울려 사귀는 것보다 경숙이가 보여준 모성애에 침잠하려고 하는 소년기 특유의 불안정한 의

식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희생적 모성애를 갈망하는 소년기의 모습은 퇴행적 행동 의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경계지대에 위치한 미성인 소년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행동양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경숙이가 보여준 희생적이고 구원적인 모성애는 향후 황순원 소설문학의 큰 주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가 되는 것이다.

(2) 가난과 결핍에 대응하는 순수 결기

『卒業日』은 길순의 극심한 가난과 결핍의 문제를 표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1930년 대 가난의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가 감당해야할 숙명과 같은 고통의 문제였다. 당장에 그날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은 『卒業日』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보통 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열여섯 살 ‘길순’의 고민과 갈등의 주요인은 가난이다. 어머니가 정미소에 다니는 것으로 어렵사리 소학교 졸업을 맞게 되었지만, 학업의 기간은 결코 순탄한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 소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길순의 현실적인 고민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다.

『어찌케 하면 남가치 잘살어 어머니를 평안케 하나? 소학교를 졸업한 다음엔 무엇을 할까? 물론웃학교에는 돈문제로 못가겠고』- 하는 『삶』의 걱정을 적지안케 아니 늙은이한테 지지안케 하여왔다.⁴⁴⁾

길순이가 겪는 가난의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박아지 미테 남겨 잇든 좁쌀 한줌을 모다 글거서 가마(솥)에 너헛다’는 것이나 ‘어제 저녁에 한단 사다가 썰고 남은 술가지를 아궁에 너코 불을 부쳤다’는 데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학교 졸업 이후

44) 황순원, 『卒業日』, 『미공개 어린이 2』, 소명출판, 2015, 293~295쪽. 『어린이』, 1932년 4월, 57-59쪽.

의 삶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길순이의 이러한 인식은 그리 길지 않은 소설 안에서 담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의식이 점점 강건하여지면서 보다 투쟁적인 결기마저도 보여줄 정도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공부도 잘하거니와 모든 점에서 모범인 길순이가 당연히 중학교에 진학해야 될 것” 말하는 6학년 담임 선생님 앞에서 노쇠한 어머니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소심함을 보여주는 소년이다. 그러나 길순의 현실 인식은 그의 독백에서 소년은 점점 굳건한 의지로 나타난다.

“지금 늙은 어머니는 굶어있다 노동(勞動)이라는 물건이 썩사히의 기름을 빼앗았다. 아직도 빼앗는다. 아프로도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가 보호하여야 할까? 자괴(길순)가 할 일이 아닌가?”⁴⁵⁾

길순은 어머니의 노동 강도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계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길순의 독백에 의하면 노동 때문에 어머니가 노쇠해 가는 것은, 분명 누군가 어머니의 노동을 착취하는 세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어머니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자신이 그 것을 맡아야 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있는데서 가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개인이 극복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 문제의 해결 주체가 어디여야 하는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계급의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도 보인다.⁴⁶⁾

45) 황순원, 앞의 책, 59쪽.

46) 이러한 계급인식에 대한 경향은 1930년대 아동문단에서 매우 두드러졌다. 1930년대 들면 『新少年』의 서사작품에서도 계급의식이 강조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는 문단 전체에서 KAPF의 활동이 뜨거워지면서 아동문학에도 계급의식이 매우 적극적으로 투영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줄져, 『『신소년』의 서사 특성과 작가의 경향 분석』, 『한국아동문학연구』, Vol.27, No. 2014, 193쪽.

그러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여 준다. 그것은 소설의 마지막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것이없고 불썰나무가 업스니 엷저나? 오날도 굶
고 래일도 모래도 주립! 주립 그러면 우리는 죽는날까지 주려야 하나?
길순이의 주먹은 바사질 듯이 단단히쥐여졌고 두눈은 점점 붉게 타올
랐다
『아니다 우리라고 굶어 죽으라는법이잇나 길순이는 힘차게 부르짖자
무슨 결심이나 한 듯이 벌떡 니러났다.⁴⁷⁾

길순은 ‘주먹을 단단히 쥐고, 두 눈을 붉혀가면서’ 분연한 결기를 보인다. 현재의 가난과 결핍 상황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소년다운 결기를 보이며 분연히 일어나는 자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길순이와 달리 길순의 모친이 가난에 대해 인식하는 지점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박아지 미테 남겨잇든 좁쌀 한줌을 모다 글거서 가마(솥)에 너헛다’는 정도의 극빈이지만, 내일 졸업식에 입을 양복을 한 벌 사주려고 점심시간에 감독을 찾아가는 길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졸업식을 마치고 ‘회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송별식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송별식에 회비 일원식을 내고 드리거든 선생, 학부형, 졸업생을 교문
밧게 서서 바라보는 자기네의 신체를 한참만에 길순이의 빗나는 눈과
길순이 어머니의 눈물고힌눈동자가 약속이나한 듯이 마주쳤다.⁴⁸⁾

소학교 졸업을 맞는 길순은 수줍고 소심한 성격에서 벗어나 소년다운 강건함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기성인에게서 볼 수 없는 순수한 결기를

47) 황순원, 앞의 책, 59쪽.

48) 황순원, 앞의 책, 59쪽.

다지고 있다. 소년 특유의 결기인데, 사회 구조의 부당함, 횡포와 착취 구조에 때문에 경제적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 하려는 순수한 결의로 해석된다.

짧은 소설이지만 전체를 통해 보면 길순의 생각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의식의 성장을 간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길순이 말한 독백체의 담화를 통해 황순원의 소년소설 인물은 개인의 가난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데서 인물의 현실인식을 논할 수 있고, 리얼리즘의 획득을 읽어 낼 수 있다.

(3) 경계 선상에서 보여주는 불안 심리

황순원 초기 작품의 소년 화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문제를 겪으면서 존재론적 불안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화자들은 성인도 유아도 아닌 경계의 지점에서 두려움의 정서와 직결되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불안정한 소년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별』, 『닭 祭』는 공히 ‘죽음’⁴⁹⁾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직면한 소년인물들이 의식의 새로운 전환을 겪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별』⁵⁰⁾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죽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49) 제 7차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황순원의 작품은 모두 7편이며, 7편 모두 죽음이 중요한 제재로 드러나 있다. 임유미,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3쪽.

50) 황순원의 『별』에는 유독 오독으로 인한 오류가 빈번히 발견된다. 이웃집의 과수 노파가 “자 동복 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마니 닭았디 왜?”(황순원, 『별』, 『황순원 전집』1, 문학과지성사, 1980, 163쪽)하는 데서 ‘동복(同腹)’은 같은 어머니를 둔 오누이를 말하는 것이다.(‘동복(同腹):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남. 또는 그런 관계의 사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황순원 연구의 여러 논문에서 ‘동복’을 아이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본문 안에서 ‘이복동생’, ‘의붓 어머니’ 등의 어휘가 사용된 것과 문맥 전체를 고려해 보면 ‘이복(異腹)’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동복(同腹)’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논문이 잘 못된 선행연구를 비판 없이 따르고 있어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식 변모 과정을 겪는 주인공 아이의 고통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다. 『별』에는 죽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죽음과 동복(同腹)누이의 죽음이다. 어머니의 죽음은 부재하는 어머니를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기억하는 반면, 누이의 죽음은 ‘죽음’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별』에서 ‘아이’는 일찍 어머니를 여윈 소년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소년의 의식이 깨기 전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이는 그런 어머니를 별로 기억하고자 할 만큼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있는 성향을 보인다.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하늘이 별나게 맑은 첫가을 밤에 “땅위의 이슬같이 만 느껴지던 별이 오늘밤엔 그 어느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은 생각”⁵¹⁾을 하면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기도 한다. 아이는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별로 환치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승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고, 그 어머니가 하늘의 별로 현상되는 소년의 의식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누이의 죽음에 직면한 아이의 감정은 사뭇 다르게 표현된다.

어느 날, 별나게 빨간 놀이 진 늦저녁 때 아이네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뒤에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버린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뛰어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을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키우는 곳을 손으로 봤다. 흙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힘껏 파냈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보았으나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골목을 나오는데 전처럼 당나귀가 매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51) 황순원, 『별』, 『황순원 전집 1』, 문학과 지성사, 1980, 163쪽, 170쪽.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체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나처럼 우리 널 왜 짙엔! 왜 짙엔!하고 소리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뛸수록 아이의, 왜 짙엔! 왜 짙엔! 하는 지름소리가 더 커갔다.⁵²⁾

누이의 부고가 도착한 날은 별나게 놀이 빨간 늦저녁 때였다. 누이의 부고를 받고 아이는 슬픔보다 어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지난날 누이가 만들어준 인형을 묻었던 곳을 ‘손가락으로 파대고’, ‘당나귀의 잔등에 올라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하지만,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현실임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이 곧 별로 환치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아이는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의, 데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을 거로 착각하면서, 부러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골렀다. 이번에는 어느 쪽 다리도 빠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돌아났다가 눈물 핀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속의 별을 내몰았다.⁵³⁾

소설 『별』에서 ‘죽음’이 아이의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면이다. 아이는 누이의 부음을 듣고도 슬프지도 않은 자신을 발견하면서 누이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식이 다름을 감지하고 있다. ‘죽음’을 곧 현실로 받아들이는 한 장면이다. 어머니의 죽음이 무의식 세계에서의 죽음이었다면, 인형의 죽음(소멸)은 상징적인 죽음이며 누이의 죽음은 소년이

52) 황순원, 위의 책, 173쪽.

53) 황순원, 위의 책, 173쪽.

현실에서 감당해야할 실제의 죽음인 것이다.⁵⁴⁾

아이가 인식 하기 이전, 무의식적 세계에서 겪은 어머니의 죽음은 어머니를 ‘별’로 형상화할 수 있었으나 의식의 세계에서 겪는 누이의 죽음에서는 ‘죽음=별’이라는 등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누이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다.

죽은 누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누이의 외모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죽음이 보편적인 것을 알게 된 소년의 의식 변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죽음은 아홉 살 이전, 기억에도 없는 때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이다. 하지만 누이의 죽음은 열네 살이 지나서 일어났다. 아이는 그동안 그만큼 성장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보편성을 이미 알게 되었다.

또, 누이의 외모에 대한 아이의 평가는 매우 혹독하다할 만큼 냉정한데,⁵⁵⁾ 미추(美醜)의 발견 또한 성장의식 변화의 중요한 한 과정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다.⁵⁶⁾ 아이는 죽음의 의미를 알기에 앞서 미추(美醜)의 발견을 선험(先驗)하였고, 이는 아이의 정신적 성장의 과정을 말해주는 중요한 표징이 되기도 한다.

아이에게 죽은 어머니의 존재는 별처럼 멀고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만 기억되고 있다. 죽은 어머니와의 비교 때문 소녀의

54) 최경애, 「‘성장’을 위한 문학 교육 모형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8쪽 참조.

55) ‘아이’는 누이의 외모 때문에 자신이나 죽은 어머니와 누이는 다른 존재로 여기고자 하나, 이들은 분명 동복(同腹)의 오누이다. 작가도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 동복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마니 닮았다”(황순원, 「별」, 『황순원 전집』1, 문학파지성사, 1980, 163쪽)라는 이웃의 과수 노파의 담화를 소설의 도입부에서 내세워 강조하고 있다.

56) 남미영, 「『韓國 現代 成長小說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2, 18쪽 참조.

접근도 거부하였던 소년은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미화하지 않게 되었다. 누이의 죽음으로 일반적인 죽음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죽음’이 곧 별이 되지는 않는다는 현실적인 죽음을 인식하게 된, 소년의 의식 변모 과정을 소설 『별』에서 보여주었다.

『닭 祭』에서는 소년이 유사죽음을 경험하는 구도이다. 성장기의 소년이 자신이 키우던 늙은 수탉을 장사하고 그 뒤로 죽음을 대리 경험하는 과정을 매우 심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닭 祭』는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제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소년은 늙고 병들어서 볼품도 없고 달리 소용도 없지만, 늙은 수탉과 애착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병든 수탉이 ‘발톱 없는 다리로 휘뚱거리며 소년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하지만, 소년은 그 수탉이 뱀(惡)으로 변해서 제비새끼(善)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반수영감의 말 때문에 애착관계를 끊어야만 했다. 소년이 행하는 애착관계의 단절의식은 잔인하다할 만큼 단호하다. 소년은 그 일로 심리적 병을 얻어 앓게 된다. 늙은 닭을 제사지내고 소년은 죽음만큼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선(善)을 지키기 위해 소년은 자신의 손으로 악을 처단했지만, 희열이 아니라 생명을 훼손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과 유사한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선으로 표상된 제비새끼가 무사히 등지를 떠났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소년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이고,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 웃음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의 단계로 올라선 해방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런 내적인 변화를 주변에서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머니와 이모, 가족들의 염려와 탄식의 내용으로 나타나 있다.

(...) 다섯 마리 제비새끼가 축가지 않고 완전히 날 수 있던 날, 소년은 그 제비들을 내다보며 미소를 얼굴 가득 띠웠다. 소년의 얼굴을 지키고 있던 소년의 부모와 이모는 지금 소년이 마지막 웃음을 웃는다고 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었다.⁵⁷⁾

‘소년의 웃음’에 앞서 반수 영감이 동네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동네 안에서 반수영감의 신뢰성이 실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의 웃음’으로 이어진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소년이 ‘마지막으로 웃는’ 것으로 알고 오열하지만, 사실은 화자 소년이 반수영감의 주술적인 말에서 해방되는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난 희열의 웃음인 것이다. 반수 영감의 말은 한갓 망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수탉을 장사 지낸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소년은 그 죽음의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진입할 수 있겠다는 안도의 웃음을 보여준 것이다.

『닭 祭』에서 소년인물의 갈등은 무지에서 벗어졌다. 무지(無知), 무성(無性)은 미성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무지로부터 벗어난 미성숙한 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경계지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별』이나 『추억』의 소년인물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미성숙으로 인한 미분화의식은 한 대상을 향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의식이 밖으로 노출되거나, 표현되면서 인물들은 존재론적 불안정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양상이다. 『별』, 『닭 祭』, 『추억』 등은 삶의 긴 과정에서 소년들이 필연적으로 거치는 심리적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다.

4. 과도기의 성과와 경계성의 의미

1) 서사 주제의 토대 마련

황순원은 그의 소설에서 모성, 사랑, 순수 등의 휴머니즘적 주제를 구

57) 황순원, 전집 1, 110쪽.

현하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작가는 ‘모성애’에 대해 꾸준히 천착하고 있는 일면을 보여준다. 소년소설에서 부각되었던 헌신적이며 구원 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모성애는 황순원 소설문학 안에서 작가 의식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그의 장편 소설에는 초기 단편소설의 소년·소녀가 성장해서 재등장하기라도 한 듯, 그들과 성향이 너무나도 흡사한 성인남녀가 중심인물로 등장⁵⁸⁾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 것처럼, 소년소설 『追憶』에서 보여준 ‘모성지향성’은 이후 황순원의 많은 작품에서 거의 전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소년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거의 유사한 인물로 형상화 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주제로 구현되는 예는 『追憶』과 『카인의 後裔』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追憶』에서 경숙의 희생은 『카인의 後裔』 오작녀에서 재생되어 나타난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追憶』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영원성을 가진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은 『카인의 後裔』에서 오작녀가 보여준 헌신적이며 적극적인 모성애와 흡사하다.

『카인의 後裔』에서 지주의 아들 박훈은 엘리트 지식인이다. 하지만 천성이 섬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토지개혁을 앞두고 소작인들의 위협에 불안과 위기감을 느낀다. 이때 오작녀는 어머니와 같은 무한정한 보호정신과 원초적인 생명력을 발휘하여 박 훈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작녀는 훈에게 ‘모성적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투여하고 있으며 박훈 또한 모친에게서나 느꼈던 아늑하고 평화로웠던 감정을 느끼며 놀라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어릴 적 박훈은 밤빼꾸기 우는 소리가 무서워 무턱대고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을 때 느꼈던 ‘아늑함과 자릿한 행복감’을 ‘어머니 아닌 오작

58) 김소이, 『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66쪽.

녀에게서 만족⁵⁹⁾을 누리기도 하며 보안서에서 혼을 부른다는 전갈이 왔을 때도 오작녀는 ‘자기가 대신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다⁶⁰⁾고 나서기도 한다. 이는 심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들을 돌보려는 어머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박훈이 일곱 여덟 살의 아이일 때 산에서 또래들과 불장난을 하다가 산불로 번지려 할 때쯤 나물을 캐고 있던 오작녀가 달려와 몸을 굴려서 산불을 끄고, 겁을 집어먹고 있던 혼의 심정을 달래주는 장면은 모성애의 절정을 보여준다.

(…)일곱인가 여덟살 때의 일이었다. 이른 봄철이었다. 같은 또래의 사내애들과 같이 산막골 넘어가는 언덕에서 불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다.(…중략…) 한번은 퍼진 불이 아무리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았다. 발로 비비면 죽은 듯하다가 다시 되살아나곤 했다. 저고리들을 벗어 들고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리어 불티만 날려 놓아 불자리는 넓어져만 갔다. 덜컥 겁들이 났다. 하나 둘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혼 혼자만이 남았다. 자기도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오작녀가 달려왔다. 나무바구니를 팽개치더니 그대로 불 위에 뒹굴기 시작했다. 한 자리를 끄고 나서는 다음 자리로 가 뒹굴었다. 이렇게 해서 불을 다 껐다. 혼은 그저 놀라운 눈으로 오작녀의 하는 양을 보고만 있었다.⁶¹⁾(…생략…)

박훈이 또래 사내애들과 산막골 넘어 언덕에서 불장난을 하고 놀다가 마른 잔디에 불이 붙어 산불로 번져갈 때 나물을 캐고 있던 오작녀가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와서 ‘그대로 불 위에 뒹굴어서’ 불을 다 끄는 장면은 『추억』에서 화마에 휩싸인 불구덩이 이층집에서 주인 아들을 ‘영일’을 구해내는 ‘경숙’의 모습과 거의 흡사할 만큼 겹쳐진다. 오작녀의

59) 황순원, 『카인의 후예』, 황순원 전집 6, 문학과지성사, 1981, 184쪽.

60) 황순원, 앞의 책, 189쪽.

61) 황순원, 『카인의 後裔』, 문학과 지성사, 1981, 213쪽.

모성애적 사랑은 카인의 후에 전편에 걸쳐 헌신적으로 나타난다.

오작녀의 적극적 모성애는 『카인의 후에』 작품 전편에 걸쳐 헌신적으로 나타난다. 오작녀가 투여하는 ‘모성적 사랑’은 약골이자 소심한 성격인 훈에게 바치는 영혼의 사랑인 것이다.⁶²⁾ 오작녀가 박 훈을 보호하고 감싸주려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원모(原母)로서의 애정”이며 “박훈은 오작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줄 밖에 모르는 겁 많고 순결한 유아”⁶³⁾로 해석되기도 한다.

오작녀가 박훈에게 보여주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랑은 남녀의 애정이라기보다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다. 그것은 박훈의 무의식에 잠재된 내용으로 꿈에서 현시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오작녀는 훈의 얼굴의 생채기를 빨기 시작했다. 목줄기의 생채기도 빨아주었다. 손등이며 손목의 생채기도 빨아주었다. 나중에는 혀로 핏기 시작했다. 이마며 어깨며 가슴이며 모조리 돌아가며 핏아주는 것이었다.⁶⁴⁾

박훈의 꿈에 오작녀는 어머니처럼 무한정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 어미소가 갓 태어난 송아지를 핏아주듯이, 오작녀는 어미동물이 새끼를 핏아주듯이 박훈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다. 물론 꿈에 나타난 행동이기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행위인데, 어머니에게처럼 오작녀에게 의지하고 있는 박훈의 무의식 세계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황순원의 소설 여러 편에서 원형적 모성애는 충실히 그려지고 있다. 여성화자가 보여주는 헌신적 모성애는 『기러기』와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도 중요하게 그려진다. 『기러기』에서 셋네는 열다섯 살에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정해준대로 혼인하였고, 이런 남편이

62) 장현숙, 『황순원 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221-222쪽.

63) 金仁煥, 『忍苦의 美學』, 『카인의 後裔』, 황순원 전집 제 6권, 문학과 지성사, 1981. 362-363쪽.

64) 황순원, 앞의 책, 1981, 182-183쪽.

무섭고 싫기만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알 수 없는 삶의 의지를 발견하게 하게 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전쟁을 겪은 여성 허무주의자 장숙이 태중의 생명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하는 내용이다.

『기러기』는 1942년 봄에 발표되었다. 30매 안팎의 길지 않은 글이다. 『기러기』에서 췌네가 보여주는 모성애는 그 어떤 고난이나 난관도 극복할 만큼 크게 그려져 있다. 췌네는 나이 열다섯에 아버지가 테릴사위로 정해진 남편이 그저 무섭고 싫기만 했으나 시키는 일이니 따랐다. 췌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게으름에 투전판에 끝내 술고래가 되어 평양 나들이를 일삼는다. 그동안 머슴살이로 벌어들였던 돈 천팔백 냥을 다 날려버렸고, 이제 췌네의 은비녀에 은가락지,성한 옷가지도 내다팔고 장인 몰래 쌀까지 퍼나가다가 급기야 돈을 내놓으라며 매질까지 한다. 췌네는 남편이 무섭기만 하다.

들일이며, 나무하기며 남편 뉘까지 다 해내던 췌네가 친정아버지 삼일장을 치른 날 저녁에 팔삭 동이 애를 낳고 말았다. 췌네 남편은 밖으로 나가 다음 날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췌네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핏덩어리를 의지하는 마음만으로 살아 갈 수 있을 듯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도 놀란다.

애는 요행 죽지 않고 살아났다. 췌네는 죽자하고 일만 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남에게 갚아줄 것부터 앞세웠다. 그리고 모든 힘들고 고됨이 이 어린애로 해서 다 사라져버렸다.(…중략…) 백날이 되어도 웃지 못하던 애가 그래도 어른면 사람을 알아보게끔 됐을 때, 췌네는 남몰래 혼자 애를 어르다가도 문득 생각키는 것은 남편이었다. (…중략…) 도리어 자기에는 무섭고 싫은 남편이건만 애에게만은 아비없는 자식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 같았다.⁶⁵⁾

인용문은 핏덩이 아이를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끼

65) 전집 1, 209쪽.

는 셋네를 묘사하고 있다. 앞에 둔 아이를 보면 무서움도 두려움도 모든 것이 녹아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셋네였다. 매질하는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도 무섭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을 것 같다. 갓 태어난 조그만 생명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지고, 무슨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만다. 태어난 아이를 보고 달라진 셋네의 모습에 셋네 자신도 놀랄 뿐이다. 모든 삶의 이유와 근원을 아기에게서 찾는 셋네의 모습은 헌신적인 모성애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전쟁의 폭력성으로 허무와 혐오와 염세의 ‘비탈’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전후 젊은이들의 불안을 비극적으로 나타낸 소설이다. 실존적 허무의식과 자의식의 교차로 빚어지는 파멸의 양상은 동호의 자살이나 계향의 자살을 방조하는 현대의 태도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대는 어떤 살의로 인해 장숙의 순결을 파괴하고 또 자학과 자조로 계향의 자살을 방조한 탓으로 급기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전쟁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다가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해자로 전락하는 현대의 모습은 전쟁의 폭력성과 등치된다.

현대가 보여준 자기 파멸적인 행동의 결과로 아기를 가지게 된 장숙은 비극적 인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무뿌리와 같은 모성을 발휘하는 인물로 부각된다. “이번 동란에 젊은 사람치구 어느 모로나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⁶⁶⁾라는 장숙의 담화는 전후 젊은이들의 피해를 대변하면서 현실을 담담히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생명을 지키겠다’고 현대의 친구 윤구 앞에서 선언한다.

장숙은 현대의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 인간존재의 허망함과 좌절, 권태 때문에 일어난 분노에 가까운 폭력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지만, 태내의 생명을 지켜가겠다는 희생적 모성애를 발휘하는 것이다.

66) 전집 7, 393쪽.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현대의 친구이자, 애초 장숙을 사랑했던 동호의 모습에서도 정신 지향적 사랑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극도의 불안과 허무가 만연한 상황에서도 정신 지향적 성향의 동호는 장숙의 순수를 지켜주려고 하며 육체적 사랑보다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모성까지 추구하는 심리가 내재된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⁶⁷⁾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보여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사랑의 순수성, 그리고 모성의 절대 성장조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 가난으로 인해 훼손된 아이들의 삶이 『움직이는 城』의 인물에서 내면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소설 『졸업일』에서 길순이가 보여준 현실 인식은 이후 『움직이는 城』과 같은 단편소설에서 리얼리즘 정신의 기반으로 확장되어 의미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졸업일』에서는 1930년대 초기 아동문학 장(場)에도 거세게 몰아쳤던 KAPF의 광풍을 미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길순이가 경제 구조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중적 현실인식은 『술』, 『황소들』에서 민중의 모습을 비춰 반사해 주고 있다.

『황소들』에서 소박한 농민들이 ‘성난 황소들’처럼 지주의 집을 습격하기에 이르는 것은 KAPF계 소설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폭력적 장면과 유사하다. 『황소들』은 대구의 쌀 폭동에서 비롯된 ‘10월 인민항쟁’을 소재로 하였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 해방 직후의 정치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⁶⁸⁾ 이 소설에서, 가혹한 미곡 공출의 집행, 물가 상승 등으로 파탄이 난 농민들의 붕기는 여러 가지 암시적 장치를 통해 민중의 승리를 낙관적으로 암시하고 있는데, 카프계열

67) 장현숙, 앞의 책, 292~293쪽 참조.

68)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68쪽 참조.

소설에서 나타나는 낙관적 전망과 유사한 일면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황순원의 소년소설 인물은 장차 황순원 소설 문학 전체에서 원형적 인물로서 역할을 맡았고 소년소설의 주제는 향후 황순원 소설문학의 큰 주제로 확장된다.

2) 이니시에이션의 시험과 경계 넘기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원래 인류학의 개념인데 ‘시작하다 initiate’에서 연유된 것으로 통과제의(rite de passage)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뜻이다.⁶⁹⁾ 이와 같은 인류학적 개념이 소설론의 주제나 유형에서도 입사소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로 원용되고 있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는 미성숙한 주인공이 성인의 세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 사건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내적 성숙을 경험하고 성년 사회에 입문한다는 내용을 주요 테마로 다룬다.

황순원의 문학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통과제의의 이론적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특별한 궤적을 찾아볼 수 있다. 송실중학교 재학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문예활동을 해온 소년 황순원이 문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그의 창작 이력과 대비해서 아놀드 반 게넵(A. Van Gennep)이 제시한 통과제의의 구조 ‘분리(separation)’ - ‘전이(translation)’ - ‘결합(incorpor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⁷⁰⁾

69)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이란 통과제의를 시작하다는 뜻으로 J.L.Henderson은 이를 ‘인생의 한 단계’라고 했다. J.L.Henderson, 『인간과 상징』, 범조신서, 1981, 153쪽 참조.

70) 아놀드 반 게넵(A. Van Gennep) 이 제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분리(separation): 입사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람이 일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며 집으로부터 벗어나 여행을 떠나거나 별도의 성스러운 장소로 옮겨지게 된다. ②전이(translation): 입사자가 세속 공간과는 분리된 성스러운 공간에 격리된 상태 속에 머무르게 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는 많은 시험과 시련이 가해진다. ③ 결합(incorporation): 분리와 전이의 가정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후 통과의례를 마

소년소설, 시 창작 그리고 소설 창작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제의적 관점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재선⁷¹⁾에서 확인된 것처럼 황순원의 초기소설은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로 분석되는 사례가 유독 많았는데⁷²⁾ 작가론적 방법으로 황순원의 소년기를 통찰해보면 제의적 구조와 여실하게 부합되는 일면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개념이 말한 분리, 전이, 결합의 방법으로 황순원의 초기 작품 활동을 설명해 본다.

(가) ‘분리(separation)’ - 소년소설 발표

‘분리(separation)’는 입사과정을 거쳐야할 신참자가 일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점이다. 황순원은 그의 소년소설 『追憶』을 집필하여 1931년 4

무리하는 입사자는 과거의 미숙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숙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건넌, 정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110~172쪽 참조,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2, 62~63쪽 참조)

71)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518~531 참조.

72) 소설 『소나기』도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소년’이 보여주는 행동에서 제의적 과정이 충실히 그려져 있다. ‘소년’이 개울가에서 윤초시네 증손녀를 보는 장면에서 ‘분리의례’는 시작된다. 아직 ‘소년’은 순진무구의 상태였으나 ‘소녀’가 보여주는 행동 등으로 미미하게나마 의식의 변화를 느낀다. ‘소년’은 개울물에 비친 ‘검게 탄’ 자신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느껴 몇 번이고 물을 움켜 얼굴을 씻는데, 이런 행동은 ‘분리의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화의 과정에 해당된다. 무의식적 정화를 거치면서 소년은 과도의례를 준비한다. ‘과도의례’는 진입의식을 과정을 거쳐 피안으로의 여행이나 이입하는 것을 뜻하는 데, 성인식으로 입사하는 것이다. ‘소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산으로 ‘소녀’와 함께 가게 된다. 이때는 의사(擬似)혼절상태의 경험을 동반하게 되는데, ‘소년’은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나 혹은 고삐도 없는 소잔등에 올라탐으로써 의사혼절 상태를 경험한다. 무엇보다 과도의례에서는 통과제의적 죽음을 거쳐야하는데 산에서 소나기를 만난 것은 죽음과 시련에 해당된다. 통과제의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례’는 과도의례에서 탈출하여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입사자는 과거의 존재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소나기』에서 산에서 통과제의적 경험을 하고 돌아온 ‘소년’은 이전과 다르게 ‘남몰래 5학년 여자 반을 엿보는’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 예전의 그 숫기없는 모습에서 탈피해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나간다. 김봉숙,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 연구: 『별』, 『소나기』, 『학』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27~37쪽 참조.

월 동아일보에 연재함으로써 일상의 삶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한다. 이때의 나이는 17세이고 송실중학교 재학 중이었다. 황순원은 당시 가장 대표적이면서 영향력이 있었던 일간지에 글을 발표하면서 그 이전의 자연인 소년 황순원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송실 중학교 시절 교지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매일신보 <소년문단>에도 시를 발표한다.⁷³⁾ 매일신보에 발표된 몇 편의 시는 평양소년소년문예단체인 '새글會' 소속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개인보다는 아직 집단 의존적인 모습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년문단'이라고 하면 다분히 학생취향으로 전문 작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지면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에는 '소년문단'이 아니라 일반 지면에 글을 실었고, 소년소설을 연재해서 발표한다. 소년의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 입사하기 위해 경계 지점에 들어 문턱을 밟고 올라 선 것이다.

황순원은 동아일보에 글을 발표하면서 입사자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집으로부터의 벗어남'과 '일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여행'을 경험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순원에게 있어 동아일보에 소년소설을 발표한 것은 교지나 혹은 소년문단에 글을 보내는 아마추어 작가로부터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나) '전이(translation)'- 시인으로 변모

'전이(translation)'는 분리 이후에 끝이어서 과정이 진행된다. 황순원 창작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시를 썼던 시기를 이 때로 볼 수 있다. '전이(translation)'는 입사자가 세속 공간과는 분리된 장소로 떠나기도 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는 시기이다. 황순원의 나이로는 17~18세사이라고 할 수 있고, 「아들아 무서워 말라」, 「默想」 등의 시를

73) 매일신보는 '소년문단'이라는 지면을 두어 문학 소년들의 글을 받았고, 투고 받은 작품 중에 잘 된 글을 뽑아 신문에 게재하기도 하고, 상품도 수여했다. 윤미란, 「황순원 초기문학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8~9쪽 참조.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변모해 나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별도의 성스러운 장소로 옮겨지고, 동시에 많은 시험이 가해지는 ‘전이’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황순원의 경우 당시의 기성 문인에 의해 신예시인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문인들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소년소설 『卒業日』도 이 시기에 발표하게 된다. 자연인이 아니라 전문 문인의 영역으로 더 옮겨지는 ‘전이’의 시기가 이때 황순원의 인생을 통해 충실하게 나타난다.

(다) ‘결합(incorporation)’ -중학 졸업과 시집 발간

‘전이’ 이후에 ‘결합(incorporation)’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결합’은 분리와 전이를 지나고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황순원에게 이 시기는 숭실 중학교를 졸업(1934.3.)하고 와세다 제2고등학교 입학 앞둔 시점이다. 동경에서 이해량, 김동원 등 극예술 연극단체인 ‘동경학생 예술좌’를 창립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경험을 한다. 무엇보다 중학교 졸업이라는 의식은 통과제의의 완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과의례를 무사히 마무리한 입사자는 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지위를 얻은 성인으로서 입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황순원에게 이 시기는 시집 『방가』를 발간함으로써 확고하게 문인의 지위를 가지며 사회 속에서 한 명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정립하는 경험을 하면서 제의의 과정을 완수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는 죽음이나 성 또는 선과 악의 도덕적 갈등 그리고 미(美)와 추(醜) 대립과 같은 내적 자아와의 충격적인 충돌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이다.

황순원의 창작 과정을 통해서 본 제의적 과정은 대체로 외적인 변화에 의한 구분이 될 수는 있으나, 작가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17~18세를

전후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은 그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특별함이었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는 한 사람이 어느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순원은 그 뒤, 21세가 되던 1935년에 그동안 교제해 온 여성(楊正吉)과 혼인⁷⁴⁾을 함으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성인의 대열에 들어서고 진정한 어른으로 기성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문인의 자리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939년 25세가 해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단편집 『눈』을 발간하여 흔들림 없는 작가의 변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된다.

모르데차이 마르쿠스는 입사의례의 힘과 효과에 대해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잠정적인 것, 미완적인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의 3분화가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잠정적인 이니시에이션’은 주인공이 성숙과 이해의 문지방까지는 도달하지만, 명확히 이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인 ‘미완적 이니시에이션’은 주인공이 성숙과 이해의 문턱을 넘어서기는 하지만 주인공이 확실성을 찾는 고투 속에 머물러 있으며 때로 자아 발견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유형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결정적 이니시에이션’은 문자 그대로 주인공이 확고하게 성숙과 이해에 도달하거나 또는 결정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으로, 보통 자아 발견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황순원은 경계의 문턱을 확실히 넘어 확고하게 성숙과 이해에 도달하였고 또 결정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정적 이니시에이션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소년문인에서 시작하여, 시인에서 소설가로 변모해 갔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그 지위를 정립한 것에서 설명이 충분하다.

황순원은 1930년부터 동요와 시를 쓰기 시작⁷⁵⁾한 것에서 비롯되어 창

74) 박혜경,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 서울: 소명출판, 2001, 연보 참조.

75) 장현숙, 앞의 책, 456쪽.

작의 변모과정을 시기별로 충실히 보여준 남다른 특징이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과제의적 작가 인생을 보여준 것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단계별 인생의 과정과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은 작가의 삶이 무엇으로, 어떻게 일관되느냐 하는 질문에 시기별 경로로 해답을 보여준 것이다.

5. 결론

오랫동안 글을 써온 작가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소년의 시기는 정말 중요하게 본다. 그 시기가 짧거나 긴 물리적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경계의 시기에 사유의 내용은 장차(將次)의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의 소년기 작품을 발굴해 인생의 틈새를 메움으로 작가의 창작활동 전모를 보고자 하였다. 그런 관점으로 황순원의 소년소설과 초기 단편소설의 서사주제가 그의 작품 세계 전체에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다른 소설과 어떻게 잇닿아 있는가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노력을 투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황순원이 창작 활동 시작단계에서 보여준 주제의식과 미의식은 그의 대표작으로 일컫는 『카인의 후예』 등 주요 작품에서 재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황순원 소년소설의 인물은 장차 소설 전체에서 원형적 인물로서 역할을 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년소설 인물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분석하고 파악해 본 결과 소년소설은 작가의 창작 활동 전체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논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황순원의 소년소설에서 인물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는 소년기의 특징적 양상이 두드러졌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위치에 처한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다소의 정신적 퇴행의 모습, 또 그와는 확연히 다른 남성다움으로 부각되는 소년의 순수한 결기, 그와 동시에 ‘경계’라는 존재론적 위치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분석해 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소년 인물의 특징을 읽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은 한국 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의 작가의식이나 미의식의 변천과정을 탐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황순원 소년소설의 의미와 특질의 의의를 찾게 되었다.

무엇보다 황순원 문학인생의 초기 시간표를 놓고 통과제의의 이론적 과정과 결부시켜볼 때, 황순원은 인류학적으로 설명되는 통과의례 과정을 문학 창작이라는 과업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로서 삶의 이력을 특별하게 보여준 드문 사례였고, 오직 창작으로 일관한 인생 시간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황순원은 일체의 잡문을 쓰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오직 소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자기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고집한 작가 중의 작가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는 글을 쓰는 것이 언제나 즐겁다’고 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의 소년소설의 의미는 성인이 되기 이전의 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와 미의식을 찾으려는 남다른 의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미공개 어린이』 소명출판 2015.
『어린이』 어린이문화진흥회 영인본 1978.
『황순원 전집』 1,2,6,7, 문학과 지성사, 1980.
『황순원 단편선』, 문학과 지성사, 2004.
『동아일보』
『조선일보』

논문 및 단행본

- 강정구, 「황순원 초기 소설 속의 순수한 아동 표상 고찰」, 『한국아동문학연구』 33집, 한국아동문학학회, 2017, 5-30쪽.
곽금주,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6, 22쪽.
권영민, 『말과 삶과 자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148-149쪽.
김봉숙,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 연구: 「별」, 「소나기」, 「학」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27-37쪽.
김부식,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서울: 을유문화사, 1983, 259쪽.
김소이, 「황순원 단편소설의 소년·소녀 등장인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8, 13, 66쪽.
김인환, 「忍苦의 美學」, 『황순원 전집』6,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0, 362-363쪽.
김종희, 『황순원』, 서울: 새미, 1998, 346쪽.
김주현, 「경계인으로서의 삶과 관찰자적 시선」, 『문예미학』11호, 문예미학회, 2005, 162-178쪽.
김 현, 「안과 밖의 변증법」, 『황순원 전집』1,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0, 299-306쪽.

- 김현철,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9, 24쪽.
- 남미영, 「韓國 現代 成長小說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2, 18쪽.
- 남보라, 「황순원 단편 소설 모성 형상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66쪽.
- 노양근, 「어린이 雜誌 反年間少年小說總評(續)」, 『어린이』, 보성사, 1932, 7. 38-42쪽.
- 박명복, 「황순원 통과제의적 소설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1999.
- 박미연, 「황순원 단편소설의 모성세계 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박태일, 「황순원 소설 「소나기」의 원본 시비와 결정본」, 『어문논총』 59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591-632쪽.
- 박혜경, 『황순원 문학의 설화성과 근대성』, 서울: 소명출판, 2001, 연보.
- 방금단, 「황순원 소설의 이념의 문제와 경계인으로서의 글쓰기」, 『돈암어문학』 31집, 돈암어문학회, 2017, 57-86쪽.
- 유종호, 「겨레의 기억」, 『목념이 마을의 개/곡예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255-264쪽.
- 윤미란, 「황순원 초기문학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5, 8-9쪽.
-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서울:일지사, 1987, 85쪽.
- 이승복, 「황순원 『카인의 후예』 인물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서울: 소년한길, 2001, 103쪽.
- 이재선, 『한국소설사』, 서울: 민음사, 2000, 518-532쪽.
-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3, 205쪽.
- 이정숙, 「지속적 자아와 변모하는 삶: 황순원론」, 『한국근대작가연구』, 서울: 삼지원, 1985.

- 이주홍, 『兒童文學運動一年間(少年小說)』, 조선일보, 1931, 2.17.
- 이현숙, 『黃順元 小說의 人物 研究 : 이니시에이션 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8, 14-15쪽.
- 이현주, 『황순원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술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33-34쪽.
- 임유미,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고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3쪽.
- 임진영, 『황순원 소설의 변모 양상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98, 68쪽.
- 장현숙, 『황순원 소설연구』, 서울: 푸른사상, 2005, 292-293쪽.
- _____, 『황순원 문학연구』, 서울: 시와시학사, 1994, 10쪽.
- 정수현, 『황순원 단편소설의 동심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33-34쪽.
- 정옥분, 『발달 심리학-전 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2004, 422쪽.
- 조보라미, 『분단 희곡에 있어서 ‘경계인’의 위상과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3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0, 311-344쪽.
- 진형준, 『모성으로 감싸기, 그에 안기기』, 『황순원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5, 168-188쪽.
- 최경애, 『‘성장’을 위한 문학교육 모형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8쪽.
- 최기숙, 『신대한 소년과 ‘아이들보이’의 문화생태학』, 『상허학보』, 16집, 상허학회, 2006, 215-247쪽.
- 최명표, 『한국 근대 소년소설 작가론』, 학술정보원, 2009, 머리말.
- 최미선, 『한국소년소설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13-21쪽.
- _____, 『한국 소년소설과 근대주체 ‘소년’』, 서울: 소명출판, 2015, 30-42쪽.

최배은, 『황순원의 첫 작품 『추억』 연구』, 『한국어와 문화』 12집, 숙명여
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2, 105-127쪽.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서울: 박이정, 2002, 62-63쪽.

柄谷行人,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b, 2010, 167-168쪽.

A. Van Gennep: 정경수 역: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1994, 110-
172쪽.

<Abstract>

A Study on the Juvenile Novel by Hwang Sunwon and the Meaning of Borderline

Choi, Mi-Sun*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of borderline by investigating the novel for boys by Hwang Sunwon. The novel for boys is a genre of novels which considers those between childhood and adults in the growth process as the problematic existence.

Hwang Sunwon published the novel for boys during his boyhood while in Sungsil Middle School. In other words, he published the novel for boys while he changed his writing from poems to novels in his entire literary life. He graduated Sungdeok Elementary School at 15 years old and published the novel for boys before entering into the 2nd High School in the Waseda University when he was 20 years old. The period he published the novel for boys was when he was at the borderline between a teenager and an adult. Moreover, he showed the specific career by publishing the novel for boys when he was at the borderline changing his literary activity from poems to novels.

As paying attention to his specific career above, this paper tried to examine the novel for boys by Hwang Sunwon and the meaning of borderline in two aspect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ribution of and impact of the themes found in the novel for boys which Hwang Sunwon published during his boyhood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the earlier period of his literary life since then. Next, this study tries to clarify the meaning of borderline on the viewpoint from the study on the writer because the novel for boys by Hwang Sunwon was in the process of change from poems to novels.

Hwang Sunwon published two novels for boys, “Memory” and “Graduation Date”, and “Star” and “Chicken <Ancestral rites>”, the short stories in his earlier literary life, can be also classified into the scope of novel for boys. The features of themes in the novel for boys by Hwang Sunwon were found in three ways. The first feature is the character restoring the mental stability as regressing by maternal love. The second feature is the character showing the wills to fight against and overcome poverty. The last feature is the character facing up to the reality only by facing the death of a sister and the death of a life which he cherished.

It is found that the subject awareness in the novel for boys is reflected in the full-length novel by Hwang Sunwon since his boyhood. More specifically, the scene which Gyeongsuk saved Yeongil, her master’s son, from fire in the ‘Memory’, the novel for boys, is almost similar to the scene which Ojangnyeo saved Bak Hun, the landlord’s son who made the forest sire, in the full-length novel ‘Descendant of Cain’.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e specific common feature that the psychological change from separation through translation to incorporation in the initiation novel is much like the change of literary life of Hwang Sunwon who started the literary life by writing the poems, published the novel for boys and finally published full-life stories. The creative work by Hwang Sunwon writing the novel for

boys was the period to build the narrative themes in the aspect above and the period of borderline for the test of the suggestive process and further growth in the viewpoint from the study on the writer.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borderline found in the novel for boys by Hwang Sunwon is very significant.

Key Words : Hwang Sunwon Juvenile Novel, Meaning of Borderline, Initiation, Memory, Graduation Date, “Chicken <Ancestral rites>”, “Star”

■ 논문접수 : 2019년 3월 19일

■ 심사완료 : 2019년 4월 9일

■ 게재확정 : 2019년 4월 12일